

김포공항을 떠나 아이슬랜드의 케플라빅 국제공항에 거의 24시간만에 도착하였을 때는 현지시각으로 자정이 다 되었다. 북극이 가까운 지방이라 여름에는 백야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케플라빅공항의 대낮같은 자정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공항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린 수도 레이카빅에 도착후 호텔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나 커튼 밖

대개 간호대학의 교수들만으로 열렸으나 이번 학술대회는 학자들만의 지식교류가 간호실무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동조한 4개 기관이 간호지식을 실무에 연결하는 것을 주 이슈로 주최하는 회의였다. 평소에 나는 간호계의 발전은 이론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실무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에 이번 학술대회가 다른 간호학자들에게도 어떤 방향

## 「간호지식과 실무간의 연관」 주제로 열린 제1회 국제간호학술대회

●일시 ... 6월 20일~23일      ●장소 ... 아이슬랜드국립대 국제회의센터

본지는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과학기술인들의 '국제학술회의 참관기'를 매월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아이슬랜드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서울대 송미순교수의 참관기를 실는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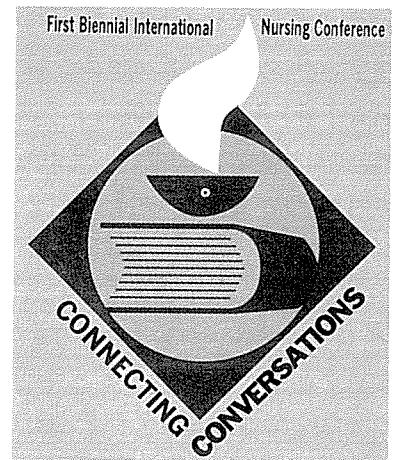
송 미 순  
(서울대 간호대 교수)

으로 비치는 빛때문인지 머리는 점점 맑아오고 잠은 오지 않았다.

### 白夜의 수도 레이카빅서

학술대회장은 이 나라 유일한 종합대학인 아이슬랜드 국립대학 안의 국제회의센터였는데 시설도 좋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떠나기 전에 지리책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나라 인구는 30만이고 이중 10만이 수도 레이카빅에 산다고 하는데 이 정도 크기의 도시에 이런 좋은 회의장이 운영되는 것이 놀라웠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호지식과 실무간의 연관' (Nursing Scholarship and Practic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인데 아이슬랜드대학 간호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간호대학,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칼레도니언대 간호대학, 그리고 뉴질랜드 간호협회의 간호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회의였다. 지금까지의 간호학관련 학술대회들은



▲제1회 국제간호학술대회 로고

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 여성대통령 개회식 축사

개회식은 품위있고 격식있게 치뤄졌다. 또 현 아이슬랜드 여성대통령이 관련 각료들과 함께 참석하여 상당히 긴 축사를 했는데 수행한 장관중 여럿이 여성인 점도 눈에 띄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슬랜드 간호사의 이야기가 대통령이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개회식 순서중에 조직위원들의 인사 시간이 있었는데 위스콘신대학의 Dr. Dielkelmann은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신의 메시지를 녹화하여 이것을 방영하였는데 강한 인상을 주었다.

매일 회의의 첫 프로그램은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는데 첫날은 스코틀랜드의 Darbyshire박사가 실무, 교육, 연구연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오후까지 매일 18개 정도의 동시진행 회의가 전공분야별로 나뉘어 진행되어 회의기간동안 전체 43개 정도의 소그룹 회의가 있었다. 나의 흥미 분야는 노인간호와 임상실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회의들에 참석하였다.

회의 둘째날 오전에는 내가 포스터로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몇시간동안 포스터 앞에 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어 흐뭇하였다. 내 포스터의 주제는 노인의 감각장애에 따른 기능상태의 변화 양상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관심이 많아 임상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영국에서 온 Tolson박사는 이번 학회에서 양로원에 있는 청력장애 노인들의 문제와 간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내 논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내가 시각과 청각장애를 복합적으로 연구한 점에 대해 자신도 앞으로 하고 싶었던 분야라고 하여 내게 많은 격려가 되었다. Dr. Tolson과는 학술대

회기간중 노인간호 사회의에서 여러번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의 연구를 같이 해보기로 합의하였다.

### 「노인간호 문제점」 논문 발표

이날 오후의 노인간호 사회의에서는 내가 좌장을 하게 되었는데 발표자들과 청취자들의 열성적인 태도가 돋보였다. 지금까지의 노인간호 연구의 주류가 병원입원노인이나 양로원노인이었던 점에 비해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은 연구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았고 노인질병 간호보다는 건강증진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변화를 느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만큼 많은 질적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양적 및 질적 연구를 같이 사용한 연구도 보였다. 아이슬랜드에는 아이슬란드어가 따로 있어 이번 회의의 공식용어인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아이슬랜드 간호사들이 많았는데도 영어로 질문하려고 애쓰고 발표 후에 발표자에게 따로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서 이곳 간호사들의 연구에 관한 열기를 느끼기도 하였다.

아이슬랜드는 86년부터 모든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그 이전에 3년제 학교를 졸업한 간호사들이 대학에 다시 등록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4년제 프로그램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간호사들의 연구능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간호교육이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전문직 내에서도 갈등이 많은 점을 생각하면 그로 인해 간호직의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

라는 생각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날인 셋째날에는 임상간호 실무관련 사회의가 여럿 있었는데 임상간호사들의 연구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매우 실제적인 연구문제들로 정책도관의 유지시간, 심장환자의 재활운동방법 등은 많은 사람이 흥미롭게 듣고 관심을 보였다. 폐회식은 간단히 진행되었는데 1997년도 겨울에 제2차 회의를 주관하게 될 뉴질랜드 간호협회 연구소의 Idour박사가 뉴질랜드 회의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하였다.

### 30개국서 3백여명 참석

제3차 회의는 1999년에 미국의 위스콘신주립대학이 있는 매디슨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광고도 있었다. 아이슬랜드 간호협회장은 폐회사를 하며 감격에 겨워 한참 말을 잊지 못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30개국 이상의 외국에서 3백명 정도 참석하였고 아이슬랜드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간호사가 참석하다시피 하였다. 뉴질랜드 간호협회장은 뉴질랜드도 작은 나라이지만 뉴질랜드의 심분의 일 밖에 안되는 아이슬랜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였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회의 분위기중 특별한 것 하나는 회의에 참석한 30여개국 사람들 중 미국인이 많기는 하였지만 많은 참석자들이 이제 미국 주도의 간호학을 벗어나 각 나라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간호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간호학이 단순히 기계적, 혹은 생리학적 학문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할때 그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진작부터 한국 간호계에서도 제시되어온

이슈이나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진실로 한국적인 간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날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원하는 사람들은 병원 견학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노인병동이 있는 레이카빅 시립병원을 선택하여 견학하였다. 병원건물은 지은지 수십년 되었다고 하는데 잘 보수되어 깨끗하고 최신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병동에 간호인력이 풍부하여 환자가 25명 있는 병동에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만 7~8명 정도 된다고 하며 모든 환자간호를 간호사들이 직접하여 질 높은 간호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 평화롭고 조용한 병원 견학

노인병동의 환자들은 거의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었는데 환자들의 표정이 밝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구가 적어 요구가 적은 이유때문인지 최첨단의 시설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치료(골수 이식 등)는 대부분 환자를 미국 등 외국에 보내어 시술받겠다고 한다. 이 나라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2만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의료수준이 이 정도인 것은 상상이외이었다. 병원 전체의 분위기는 서울에서 내가 주로 보던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하였다.

응급실에는 성폭행환자를 위한 특수 훈련을 받은 팀이 부인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성폭행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편안히 올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며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또 응급실에는 응급구조팀(우리나라의 119구조대 같은)과 의료진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응급 구조중에 발생

하는 문제점에 대해 의료진의 지원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비행기 예약시의 문제로, 회의 공식일정이 끝난 6월 24일 하루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아이슬랜드는 기온이 너무 낮아 농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수산업과 낙농업이 중요 산업인데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해산업은 육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 외서는 관광산업에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광 사업은 여름 한철이지만 국가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국제 간호학술대회도 회의 운영과 준비 전반은 거의 아이슬랜드 관광청(Iceland Tourist Bureau)에서 주관하여 회의 전의 연락이나 등록 등도 모두 아이슬랜드 관광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웠다. 회의 마지막날에는 관광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일일이 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러한 노력이 아이슬랜드 관광열기를 높이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아이슬랜드 관광청에서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리 많은 관광안내 자료들을 보내주었는데 수많은 관광프로그램이 거의 다 관광청의 감독하에 이루어 지고 있었다.

### 화산과 온천의 北極관광도

나는 24일에 레이카빅 근처에 있는 헤클라 화산과 근처 계곡들을 관광하는 하루 여행을 신청해 놓았었다. 이날도 비가 오고 안개가 심하여 아름답다는 헤클라 화산의 모습은 거의 보지 못하였다. 이 산은 한여름에도 중턱이상은 눈으로 덮여있다고 하는데 지난 92년에 마지막 화산폭발을 하였다고 한다. 가

이드의 이야기는 언제 또 폭발을 할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고 한다. 화산이 이러한 위협이 되는 대신 이 나라의 많은 온천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발전소가 모두 온천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여 공해가 되는 연료 사용이 필요없다고 하고, 온천물로 지역난방도 하고 있으며 옥외수영장들도 온천물로 채워져 겨울에도 가온할 필요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온천이 많았고 곳곳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간 계곡은 거의 다 빙하에 의해 깎여진 계곡들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만 자라는 이끼와 작은 풀들이 가득하고 높이가 100m 이상되는 아름다운 폭포도 여러개가 있었다. 나무는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국가적으로 나무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추운 기온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다한다. 또 그늘에는 아직도 얼음이 많이 남아 있어 이 나라의 이름인 Iceland에 걸맞는 풍경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제일 따뜻한 시기가 지금인데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섭씨 8~12도 정도)춥고 겨울은 밤만 계속되는 시기도 있다니 우리나라의 기후가 좋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케플라빅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학술회의에서 만난 많은 간호학자들과 간호사들을 통하여 앞으로 임상간호사들과의 교류, 공동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과 한국적인 간호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각도 깊어졌다. 이번 가을에 한국의 시그마간호학회에서도 임상실무와 간호지식을 회의 주제로 삼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느낀 점을 한국의 동료들에게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⑤7